

미국-이란, ‘전면전’ 일촉즉발 주변국 ‘추가 휴전안’ 진화 시도

양국 지속 충돌… 피해규모 커져
트럼프 행정부, 자국민에 위험 고지
이란 대통령 “마지막까지 싸울 것”

미군이 지난주에 이어 대 이란 공습을 2주째 퍼부었다. 이란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전면전’으로 규정하고 결사 항전한다는 방침을 자국민에게 알렸다. 미국무부는 중동지역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20일(현지시간) ‘X(엑스)’를 통해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한국 21일 오전 5시)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지하 미사일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타브리즈와 이란 민간 원전이 위치한 부셰르 일대가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공습으로 걸프국 주둔 미군병사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이란은 엄청난 규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 측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아 숨진 요르단 미군기지 병사 2명의 신원을 공개했다. 실종된 병사 1명의 유해 여부는 DNA 감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이라크에서는 이란 드론을 폭파하는 과정에서 미군병사 1명이 사망했다.

이로써 올해 2월28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군 측 사망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었다. 이란의 경우, 지난 18일 기준 자국민 사망자 수가 50명, 부상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마수드 페제שי키안 이란 대통령은 테헤란에서 열린 사법부 최고회의에서 “이란은 현재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 전쟁은 단순히 미사일로만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적들은 군사적 타격만으로는 이란 국민의 항복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도 했다.

그는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란 상황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단합과 결속”이라며 항전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도 자국민들에게 위험 상황을 고지했다. 미 국무부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인해 복잡해진 안보 상황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동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 밖의 지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는 중동지역으로의 여행이나 경유 일정을 재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무부는 그간 “중동지역 외 미국 외교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된 바 있다”며 “이란과 이란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국이나 미국인과 관련한 시설과 장소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미국이 추가 휴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미 인터넷언론 악시오스에 따르면 서아시아 지역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 양측에 10일간의 휴전안을 제안했다. 매체는 미국 정부가 이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카타르와 파키스탄, 이집트 등이 새로운 휴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안은, 교전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해 유명무실화된 미-이란 간 중전 양해각서(MOU)를 되살린다는 내용이다. /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한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법정 최후기간인 오는 9월4일까지로 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

신진서, 카타고 꺾었다… 인간 vs AI 새 역사

알파고 이후 10년만에 AI 제압

바둑 세계랭킹 1위 신진서 9단(사진)이 인공지능(AI) ‘카타고(Katago)’와 대결에서 1패 후 2연승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신진서 9단은 21일 서울 중구 청파로의 한국경제TV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첼수학·한경 기진전’ 3국에서 221수 만에 11집 반승을 기록했다. 그는 지난 17일 진행된 1국에서 245수 만에 흑 불계 패했으나, 19일 2국에서 4시간50여분에 걸친 혈투 끝에 290수 만에 4집 반 승을 거뒀다. 그리고 이날 2연승을 거두면서 역전승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3월 이세돌 9단이 AI 알파고에 1승4패로 진 이후 10년 만에 펼쳐진 인간과 AI의 재대결이었다. 인간이 10년 만에 AI를 제압하면서 설욕했다.

신 9단이 상대한 카타고는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데이비드 우가 개발한 오픈소스 바둑 AI로, 현재 프로기사들의 연구와 훈련, 바둑 중계 해설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바둑 AI다.



이번 승리로 신진서는 총 1억원의 승리 수당(1승당 5000만원)과 고급 세단 제네시스 G90을 받게 됐다.

신진서 9단은 대국 후 한국기원을 통해 “오늘 대국은 큰 전투 없이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이끌었다”며 “더 잘 둔 바둑은 3국이지만, 난이도가 훨씬 높았던 2국의 승리가 더 뿌듯했다”고 총평했다.

AI와의 접바둑에 대해서는 “이번 대회를 통해 2점 접바둑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조금이라도 잘못 두면 여전히 힘든 승부여서 유리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며 “2점 접바둑에서 AI에게 2~3집 정도의 틈을 준다면 매우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도전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신진서는 “1국패배 후에도 끝까지 응원해 주신 팬들 덕분에 2국과 3국을 이겨낼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민선 기자 msjo@

카타르산 LNG 공급 위축… 북미 중심 재편

운송거리 증가로 ‘톤마일 효과’
중장기적 LNG선 발주 압력 커져

중동 분쟁 여파로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위축되면서 글로벌 LNG 교역이 북미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운송 거리 증가에 따른 ‘톤마일 효과’로 중장기적으로 LNG 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21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 3~6월 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의 LNG 선적량은 전년 동기 대비 350억㎥ 감소했다. 부족분은 북미·아프리카 신규 프로젝트와 다른 생산국 물량이 대체했다. 한국의 수입 지형도 급변했다. 한 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지 지난해 카타르산 LNG 수입량은 696만6610톤(14.9%)으로 수입국 3위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7.9% 감소한 160만5286톤(7.2%)으로 5위까지 밀렸다. 특히 4~6월에는 카타르산 LNG 수입이 전무했다.

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 등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는 자원 수출이 어



한화오션이 건조한 LNG운반선. /한화오션

렵다. 카타르산 LNG 의존도가 약 14%인 한국은 당분간 북미산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카타르 라스라판에서는 14개 액화 트레인 중 2개가 파손돼 연간 1280만톤 규모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완전 복구에는 3~5년이 걸리고, ‘노스필드 이스트(NFE)’ 확장 프로젝트 가동도 최소 1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공급선 이동은 운송 거리 증가로 이어진다. 중동~극동아시아 항로는 약 2주가 걸리지만, 북미~극동아시아 항로는 약한 달이 소요된다. 같은 물량을 운송하는 데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한 ‘톤마일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다. 카타르산 LNG를 수입

하던 다른 국가들까지 북미산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원거리 운송 수요와 선박 발주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클릭스리서치 집계상 올해 상반기 글로벌 LNG선 발주는 4700만 CGT·54척으로 전년 동기 600만 CGT·7척의 약 8배로 늘었다. 다만 2분기 발주는 19척으로 1분기 35척보다 적어 중동 전쟁의 즉각적인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상반기 발주는 미국·캐나다·아프리카 신규 프로젝트와 노후선 교체 수요가 주도했다. 업계는 카타르 수출 회복이 늦어지고 북미 프로젝트 가동이 빨라질 경우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추가 발주가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

다만 카타르산 감소분이 모두 북미산으로 대체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내 LNG 수요는 도시가스·발전용이 대부분이지만, LNG 발전은 원전·석탄의 전력 공급을 보완한다. 공급 차질이 길어지면 대체 수입보다 LNG 발전 비중을 낮추고 다른 발전원을 활용할 수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metro

국방부, 용산 등 軍 보호구역 해제·완화

2916만㎡ 규모… 지역균형발전 도모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군 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등을 비롯해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등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21일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약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고성군과 속초시, 평택시, 고양시, 용산구 등 5곳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용산구는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이 없어지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탄약고의 탄약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후속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될 것

으로 보인다.

시흥시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서울 마포 은평구와 고양시, 세종시 등 4곳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된다.

수색비행장은 전·평시 지원항공작전 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헬기 전용작전기지로 바뀐다.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 전사업으로 기존 활주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진다.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위험자산 밸류에이션 조정’ 이어져”

》1면 ‘셀코리아 채권·부동산’서 계속

호주계 자산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맥쿼리코리아오퍼티니티즈 사 모투자합자회사 제6호는 특수목적법인(SPC) 디씨케이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오는 9월 17일까지 가비아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공개매수 대상은 가비아의 발행주식 1342만684주 가운데 최대주주 측 보유 주식과 자기 주식을 제외한 잔여 주식 980만5505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73.1%에 해당한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EQT는 공개매수를 통해 더존비즈온을 상장폐지 시켰다.

채권시장으로 발길을 돌렸을까. 절반은 맞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6년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채권자금은 16억5000만달러 순유입이었다. 전월 56억8000만달러의 3분의 1도 안된다. 세계국제지수(WGBI) 편입 등에 따른 자금 유입 기대가 무색할 정도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발당 시장을 장악했던 외국계 투자자들의 국내 발당 투자

움직임도 주춤하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코리아의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를 보면 올 1분기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 투자 규모는 6조2536억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 감소했다. 중동전쟁이 격화하고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 통화정책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유동성에 발목을 잡는 영향으로 보인다.

상가포르게 ARA코리아자산운용은 지난 2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에 서울역 인근 대형 오피스 빌딩 ‘서울스퀘어’를 팔았다. 매각대금은 1조2855억원으로 분기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자산 매각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건전성 회복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그보다는 부작용이 크다. 우선 국내의 자산가치의 하락이다. 국제금융센터는 7월 글로벌 리스크 위치에서 리스크 1위로 ‘위험자산 가격조정’을 꼽았다. 국제금융센터는 “고금리, 인공지능 투자 버블 우려, 강달러 등을 반영해 위험자산의 밸류에이션 조정”으로 리스크가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